

6·25전쟁시 이승만의 초기 대응과 전시지도자로서 역할*

남 정 옥**

1. 머리말
2. 북한의 기습남침과 이승만의 초기 대응
3. 전시지도자로서 이승만의 역할
4. 맺음말

1. 머리말

6·25전쟁 때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 북한군의 기습남침 이후 전쟁의 주요 고비마다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져 대한민국은 살아남게 됐다. 마치 애국가 구절의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처럼 기적 같은 일들이 전쟁의 어려운 국면마다 빈번히 일어나곤 했다.

미국의 신속한 참전 결정이 그렇고, 유엔안보리의 신속한 소집과 한국지원이

* 본 논문은 연세대학교 현대한국학연구소 제11차 우남학술회의(2010.11.19) 발표문을 다시 정리한 것임.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그렇고, 소련이 유엔안보리에 불참한 것도 그렇고,¹⁾ 북한군이 서울 입성시 김일성(金日成)이 최초 계획을 바꾸어 한강 교량 대신 중앙청과 방송국 등 주요시설을 우선 점령하라고 명령한 것도 그렇고,²⁾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한 후 그곳에서 3일간이나 지체한 것도 그렇고,³⁾ 맥아더(Douglas MacArthur) 장군의 적시적절한 한강방어선 시찰이 그렇고, 낙동강의 불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인천상륙작전이 그렇고, 남한에서 20만 명의 '인민봉기'와 부산에서 노동자들의 집단 파업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그렇고,⁴⁾ 전쟁 초기 적 진차에 의해 전차공포증에 걸렸음에도 국군이 중국의 국공내전(國共內戰) 시장개석(蔣介石)의 군대처럼 집단투항하지 않은 것이 그렇고,⁵⁾ 북한이 최초 그들의 남침공격계획대로 전쟁이 진행되지 않는 것 등이 그렇다.⁶⁾ 이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차질이 있었다면 한국의 운명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그런데 과연 위와 같은 일들이 모두 천우신조의 보살핌에 의해 그저 기적처럼 벌어진 행운이었을까.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수차례에 걸쳐 일어나는 일이 과연 가능한 것이었을까. 그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위싱턴의 한국전쟁 기념공원에는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Freedom is

-
- 1) 소련은 6·25발발 한 달 후인 8월 1일 유엔안보리에 복귀했다. 박실, 『한국외교비사』, 기린원, 1980, p.149.
 - 2) 김일성은 6월 27일 북한인민군총참모장 강건에게 중앙청 등 주요 건물들을 점령하라고 해서 북한은 한강교를 점령하지 못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제1권, 군사편찬연구소, 2001, p.138; 김광수, 『한국전쟁 중 북한군의 기갑운용 연구』, 화랑대연구소, 2004, pp.29~30.
 - 3) 소련군사고문단은 “서울을 점령한 후 조선인민군이 3일간 그곳에 머물러 이승만 군대에 대한 승리를 자축할 뿐 적을 계속 추격하지 않아 적이 한강 남쪽 강변을 따라 방어선을 구축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제2권, 군사편찬연구소, 2001, p.16.
 - 4) 김일성은 박헌영을 숙청하면서, “미국 놈의 고정간첩 박헌영이 남조선에 지하당원이 20만 명이나 되고, 서울에만 6만 명이 있다고 떠벌였는데 20만 명은 고사하고 우리가 낙동강 계선에 진출할 때까지 단 한 건의 폭동도 없었다.”고 비난했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전사편찬위원회, 1977, p.145; 육군본부, 『북괴 6·25남침분석』, 정보참모부, 1970, p.318; 유성철, 「나의 증언」 (10), 『한국일보』, 1990.11.13일자.
 - 5) 6.25이전 군내 반란사건과 숙군은 오히려 대한민국을 구하였고, 국군을 반공군대로 육성하는 계기가 됐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해방과 건군』 제1권(구권), 1967, p.498.
 - 6) 북한사회과학역사연구소, 『조선전사』 제25권, 사회과학연구소, 1981, p.85.

not Free).”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이것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세상 모든 일이 노력 없이 또는 사전 준비 없이, 그리고 창조적 지도자 없이 그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일 것이다. 성공의 뒤안길에는 그에 상응하는 노력의 대가가 반드시 뒤따른다는 평범한 교훈이 숨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6·25전쟁 초기 국군의 투철한 반공정신 없이 미군의 증원을 가능케 한 한강선 방어작전이 가능했을까. 예비전력 확보 없이 미군만으로 지연전과 낙동강 방어작전이 가능했을까. 숙군 없이도 군이 정상적인 지휘체계를 갖추고 싸울 수 있었을까. 전쟁 이전 남로당에 대한 척결 없이도 20만명의 ‘인민봉기’를 막아낼 수 있었을까. 유엔군사령관에게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에 대한 이양 없이도 효과적인 전쟁수행이 가능했을까. 미군 속의 한국군인 카투스(KATUSA)의 지원 없이도 인천상륙작전이 가능했을까. 전쟁 이전 해병대 창설 없이도 인천상륙작전에 미군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참전할 수 있었을까.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반공포로 석방 없이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이 가능했을까. 방위조약 없이 주한미군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휴전 이후 국군이 60만 대군으로 그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을까.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온전히 존재할 수 있었을까는 의문이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6·25때 그저 행운에 의해서만 지켜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6·25전쟁 중 미국과 유엔을 상대로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며 전후 국가생존을 위해 노력한 국가지도자 이승만(李承晩, 1875~1965) 대통령이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이미 사라졌거나, 제주도 제2의 대만과 같은 정부형태로의 존립하고 있거나, 아니면 태평양 군도의 어느 섬에서 망명정부 형태로 존재하고 있지 않을까.⁷⁾

7) 6·25전쟁시 한국의 망명정부를 기술한 관한 참고자료는 다음과 같다. JCS Decision on Evacuation of ROK Personnel from Korea, February 4, 1951, RG.218, CCS 383.21 Korea(3-19-45), Sec., 81, N.A.; 전쟁기념사업회, 『한국전쟁사: 북한군 침공과 한국군 방어』 제3권, 행림출판사, 1992; 프란체스카 도너 리, 『이승만과 6·25: 프란체스카의 난중 일기』, 기파랑, 2010; 정일권, 『전쟁과 휴전』, 1986.

역사에서 가정은 무의미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만일 그가 아니었으면' 하는 'if not 방식'으로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만큼 진실과 교훈, 많은 이해와 성찰을 가능케 하는 방법도 없다고 본다.⁸⁾ 이것은 6·25전쟁 동안 이승만 정부의 노력과 이승만의 전시지도자로서 역할⁹⁾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전까지 연구에 대한 비판과 함께 역사의 진실을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아닐까 싶다.

따라서 이 글은 대한민국을 건국한지 채 2년도 안된 시점에서 북한의 기습남침을 당해 어려운 국내의 주변정세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이 전시지도자로서 전시내각을 이끌며 어렵게 수행했던 일련의 조치들을 국가수호 및 민족생존이라는 큰 틀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기존의 이승만에 대한 저평가 및 오해의 일단을 다소나마 해소시키고,¹⁰⁾ 이승만이 건국대통령으로서 6·25라는 민족 최대의 국난을 이겨내고 한국을 지켜낸 대한민국의

-
- 8) 송복, 「이승만 저작의 현황과 역사적 의미」, 『저서를 통해 본 이승만의 정치사상과 현실 인식』,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부설 현대한국학연구소 제10차 학술회의(2009.11.13), p.5.
- 9) 6·25때 이승만의 전시지도자로서 역할을 다룬 국내 연구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온창일, 「전쟁지도자로서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재평가』,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6; 남정옥, 「6·25전쟁과 이승만 대통령의 전쟁지도」, 『군사』 제63호, 군사편찬연구소, 2007; 남정옥, 『이승만 대통령과 6·25전쟁』, 이담Books, 2010.
- 10) 이승만에 대한 국내 학계의 일반적 평가는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이승만에 대해 긍정적 평가는, “건국의 원훈(元勳)이자 한민족의 독립과 번영의 기초를 다진 국부(國父)로 세계 역사상 보기 드문 대정치가”로 보고하고 있는데 이의 논저는 다음과 같다. 유영익, 『이승만의 삶과 꿈: 대통령이 되기까지』, 중앙일보사, 1996; 유영익,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 『이승만 대통령 재평가』(유영익 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6. 김인서, 『망명노인 이승만 박사를 변호함』, 독학회출판사, 1963; 曹正煥, 「머리말」, 『外務行政의 十年』(外務部 편), 외무부, 1959; 허정, 『우남 이승만』, 태극출판사, 1974; 허정, 「내일을 위한 증언: 허정 회고록」, 샘터사, 1979; 임종명, 「이승만 대통령의 두 개의 이미지」, 『한국사 시민강좌』 38집, 일조각, 2006; 로버트 올리버 지음·황정일 옮김, 『신화에 가린 인물 이승만』,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2.
- 이에 반해 이승만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한반도의 통일을 저해하고 민주주의를 압살시킨 우리나라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려놓은 시대착오적 독재자”로 매도하고 있는데 이의 논저는 다음과 같다. 김상웅, 「이승만은 우리 현대사에 어떤 '악의 유산'을 남겼는가?」, 『한국 현대사 뒷얘기』, 가람기획, 1995; 송건호, 「李承晩」, 『韓國現代史人物論』, 한길사, 1984; ohn M. Taylor, *General Maxwell Taylor: The Sword and the Pen* (New York Doubleday, 1989); Richard C. Allen, *Korea's Syngman Rhee: An Unauthorized Portrait* (Rutland, Vermont and Tokyo, Japan: Charles E. Tuttle Co., 1960).

국권수호자라는 것을 재인식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북한의 기습남침과 이승만의 초기 대응

(1) 북한의 남침과 전황

김일성과 스탈린(Iosif Vissarionovich Stalin)이 모택동(毛澤東)과 협의하여 수립한 북한의 남침공격계획의 기본개념은 전쟁 개시 2일만에 서울을 신속히 점령하고 한강 이남을 우회, 차단하여 전선에 배치된 국군의 주력을 격멸한 다음 남한 내 20만 명 이상의 공산당원에 의한 '인민봉기'를 유발하여 한국정부를 전복하는 하는 것이었다. 이때 북한군은 신속히 남해안까지 진출하여 미 증원군의 한반도 상륙을 저지하고 1개월 내에 전쟁을 종결함으로써 8월 15일 해방 5주년 기념일에 서울에 이른바 그들이 말하는 '통일인민정부'를 수립한다는 것이었다.¹¹⁾

북한군은 이러한 남침공격계획과 전차 및 전투기 등 막강한 전력을 앞세워 1950년 6월 25일 04:00를 전후하여 전 전선에 걸쳐 포격을 개시했고, 동해안에서는 특수훈련을 받은 게릴라 부대를 강릉일대와 부산지역으로 기습적으로 상륙시키려고 했다.¹²⁾ 또한 전쟁 당일인 6월 25일 10:00부터 벌써 북한군 전투기가 김포와 여의도 공군기지에 출현했고, 정오경에는 야크(YAK) 전투기 4대가 서울상공에 출현하여 용산역과 통신소 등 서울시내 주요 시설에 기총소사를 하고 폭탄을 투하했다.¹³⁾ 이어 북한군은 개성과 동두천을 점령하고, 전쟁 다음날 13:00경에는 서울의 관문인 의정부를 함

11) A. V. 토르쿠노프, 구종서 역, 『한국전쟁의 진실과 수수께끼』, 에디터, 2003, p.11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제1권, 군사편찬연구소, 2001, pp.135~137; 러시아 국방부 저, 김종국 역, 『러시아가 본 한국전쟁』, 교육사령부, 2002, p.31.

1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방어전투』 제2권, 군사편찬연구소, 2005, p.55.

13) 합동참모본부, 『한국전사』, 합참 군사연구실, 1984, p.787.

락시키고 서울 진입을 시도했다.

한편 북한군의 기습남침을 받은 육군본부 상황실은 전선의 예하부대로부터 적의 공격 상황을 접수하고 육군총참모장 채병덕(蔡秉德) 소장에게 이를 보고했다. 채총장은 지난 토요일 밤 육군회관 낙성식에 참가하고 이날 02:00경 총장공관으로 돌아와 취침 중 05:00경 당직사령으로부터 상황보고를 받은 뒤, 좀 더 자세한 상황을 알기 위해 상황장교 김종필 중위를 공관으로 불러 이를 확인한 다음, “현시간부로 전군에 비상을 발령하고 각 국장을 소집하라.”고 명령했다.¹⁴⁾

채병덕은 지체없이 신성모(申性模) 국방부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장관비서인 신동우 중령에게 연락을 취한 다음 신 중령과 함께 공관인 마포장으로 달려갔다. 자고 있던 신 장관은 채총장의 방문을 받자 가운만 입은 채 채병덕 총장이 휴대하고 간 상황판을 보고 남침사실을 보고 받았다. 이때가 07:00경이었다.¹⁵⁾

이승만은 10:00경 경무대 경찰서장 김장홍 총경으로부터 남침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후 이승만은 경무대에서 신성모 장관으로부터 전쟁 상황을 보고 받고, 14:00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각 군 총장으로부터 좀 더 자세한 전황보고를 받았다.¹⁶⁾ 이승만은 군사경력자회의를 비롯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신성모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 그리고 이승만은 무초(John J. Muccio) 대사와 맥아더 원수, 그리고 장면(張勉) 주미 한국대사를 통해 한국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등 주로 외교에 의한 군사적 조치를 강구했다.

그렇지만 전차를 앞세운 북한군의 막강한 전력 앞에 서울 북쪽에 형성된 국군의 방어선이 차례로 무너지면서 이승만의 피난, 정부의 이전, 한강교의 폭파, 서울 함락 등 전세는 급속히 악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맥아더 장군의 한강방어선 시찰,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른 미국을

14)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상, 1995, p.108.

15)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p.576~577.

16) 위의 책, pp.610~611.

비롯한 유엔회원국의 군대 파병, 유엔군을 통합 지휘할 유엔군사령부 설치 등으로 한국에서의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됐다.

(2) 이승만의 초기 대응과 조치

6·25전쟁이 발발한 6월 25일 이승만은 여느 일요일과 마찬가지로 아침 식사를 마치고 09:30쯤 경회루로 낚시를 하러 갔고, 프란체스카(Francesca Donner Rhee)는 이보다 빠른 09:00시경에 어금니 치료를 받으러 치과로 갔다.¹⁷⁾

이승만은 10:00경 비원의 반도지에서 낚시를 하다가 경무대경찰서장¹⁸⁾ 김장흥 총경으로부터 ‘북한의 대거남침’ 상황을 보고받고 경무대로 돌아왔다.¹⁹⁾ 이승만은 10:30경에 경무대에 도착한 신성모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최초의 전황을 보고받고 임시국무회의의 소집을 지시했다.²⁰⁾ 이때 이승만은 한국군 단독으로는 북한의 남침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미국의 지원과 유엔의 개입을 위한 전시외교에 주력했다.

이승만은 11:35에 무초 미국대사의 방문을 받고 전쟁사태에 관한 중요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승만은 이 자리에서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야 될 것인지를 밝혔다. 그는 “국군에게 시급히 필요한 소총과 탄약을 미국에게 요청하면서 서울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민들에게 돌멩이라도 들고 싸울 수 있도록 총력전 태세로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한국이 제1차 세계 대전의 배경이 되었던 제2의 사라예보(Sarajevo)가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17) 프란체스카 도너 리, 『프란체스카의 난중일기』, p.22. 이승만은 경회루에서 낚시한 것이 아니라 비원의 반도지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다(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610).

18) 경무대경찰서는 6·25전쟁 당시 서울시경찰국 산하에 편제된 정식 경찰서 명칭이다. 경무대경찰서는 1949년 2월 23일 경무대 지역을 관할하던 창덕궁경찰서를 폐지함과 동시에 ‘국가원수와 중앙청 경호경비’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됐다. 경찰청, 『경찰50년사』, 경찰사편찬위원회, 1995, pp.106~107.

19) 프란체스카 도너 리, 『프란체스카의 난중일기』, p.2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610

2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610.

이 위기를 이용하여 절호의 기회가 될 ‘한국의 통일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리고서 그는 “미국의 여론이 공산주의 침략에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²¹⁾

[무초 대사에 의하면] 대통령[이승만]은 이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14시에 국무회의(cabinet meeting)를 개최할 것이며, 서울에 계엄령(martial law) 선포를 고려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필요할 경우 모든 남녀와 어린아이들까지도 돌맹이나 몽둥이라도 들고 나와 싸워야 한다는 것을 호소해 왔다며, 무기와 탄약이 가용하다면 국민들의 사기가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한국이 제2의 사라예보가 되는 것을 피해야 하고, 현재의 위기가 한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한번 뿐인 ‘절호의 기회(best opportunity)’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²²⁾

무초와 회담이 끝난 후 이승만은 13:00에 주미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장면 대사에게 미국의 원조를 얻어내도록 지시했다. 이어 14:00에는 비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사태를 논의했으나 전차나 전투기를 막을 수 있는 뾰족한 수단을 강구하지 못한 채 산회했다.²³⁾

그후 전선 상황이 계속 악화되자 이승만은 25일 22:00에 무초 미국대사를 경무대로 불러 대책을 논의했다. 여기에는 이범석(李範奭)과 신성모 등 전·현직 국무총리가 자리를 함께 했다. 이 회의에서 대통령이 “대전으로의 천도를 밝히자 무초 대사는 이를 반대하면서 자신은 대통령이 서울을 떠나더라도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다.²⁴⁾ 이는 이승만이 ‘서울 천도’를 내세워

21) 무초 미국대사는 이승만과의 대화 내용을 25일 14시에 워싱턴의 국무장관에게 보고했다(The Ambassador in Korea(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1950.6·25), *FRUS 1950*, Vol. VII, pp.129~131). 또한 무초 대사는 이승만을 경무대로 방문하기 전인 25일 10시에 “한국에 대한 북한의 전면공격”을 알리는 전문을 국무장관에게 보고했다(The Ambassador in Korea(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1950.6·25), *FRUS 1950*, Vol. VII, pp.125~126).

22) The Ambassador in Korea(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1950.6·25), *FRUS, 1950*, Vol. VII, pp.129~131.

23) 부산일보사 편, 『임시수도천일』 상, 부산일보사, 1985, p.20.

24) The Ambassador in Korea(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1950.6.26), *FRUS 1950*, Vol. VII, pp.141~143.

미국의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지원을 얻기 위한 외교적 제스처로 판단됐다.²⁵⁾ 이승만은 미국이 이제까지 한국지원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자 이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승만은 25일 밤을 앓은 채로 꼬박 세웠다. 경무대 비서들도 눈을 붙이지 못했다. 북한 야크기는 이날 밤에도 서울 상공을 선회했고 그때마다 공습경보가 요란하게 울렸다.²⁶⁾ 그런 상황에서도 이승만은 미국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이승만은 26일 03:00에 맥아더 장군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에서의 전쟁 사태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묻는 전화를 했고²⁷⁾, 04:30에는 무초 대사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극동군사령관과 참모장에게 한국군에게 필요한 전투기와 탄약 등을 요청하려고 전화했는데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무초 대사는 05:00에 이승만과의 통화내용을 애치슨 국무장관과 극동군사령관 맥아더 원수에게 알리고 신속한 지원을 요청했다.²⁸⁾

이승만은 이날(6월 26일) 아침에 치안국을 방문해 경찰계통으로 들어온 전황을 확인했다.²⁹⁾ 한편 이날 10:00에는 이승만의 지시에 따라 신성모 국방부 장관이 주재하는 군사경력자회의가 중앙청에서 열렸다.³⁰⁾ 대통령은 14:00에 육군본부와 치안국 상황실을 방문하고 전황보고를 들었다. 대통령이 전황보고를 받고 경무대로 돌아올 때 서울 상공에는 적의 야크기가 맴돌고 있었다. 적기가 나타날 때마다 이승만과 프란체스카는 방공호로 피신해야 했다.³¹⁾

25) 온창일, 「전쟁지도자로서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재평가』,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6, p.215.

26) 부산일보사 편, 『임시수도천일』 상, p. 24.

27) 프란체스카 도너 리, 『프란체스카의 난중일기』, p.23.

28) 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 June 26, 1950, *FRUS 1950*, Vol. VII, pp.147~148.

29) 군사편찬연구소, 『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방어전투』 제2권, p.81.

30) 군사경력자회의에는 채병덕 육군총장, 김정렬 공군총장, 김영철 해군총장 대리, 김홍일 소장, 송호성 준장, 前 통위부장 유동열, 前 국무총리 이법석, 前 광복군사령관 이청천, 前 1사단장 김석원 준장 등이 참석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방어전투』 제2권, p.67.

31) 프란체스카 도너 리, 『프란체스카의 난중일기』, p.24.

그런데 6월 26일 13:00경 서울의 관문인 의정부가 함락된 이후 대통령의 피난문제가 나왔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이는 전황 보고가 뒤죽박죽인데다 신 장관의 “계속 걱정하실 것 없다”는 말로 사태를 흐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날 16:00께 프란체스카 여사는 비서들에게 기밀서류를 챙기게 한 뒤 자신이 교통부장관에게 특별열차를 대기하도록 했다. 그런데 신성모 장관이 경무대로 들어와서 “각하 별일 없습니다. 사태는 호전돼 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프란체스카는 피난준비를 취소시켰고 이승만도 내일 아침(27일) 국무회의를 소집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밤 10시가 넘자 비서들이 피난열차를 대기하도록 교통부장관에게 연락했다.³²⁾

그런데 21:00에 김태선 서울시경국장이 경무대에 들어와 “서대문형무소에 수천 명의 공산분자들이 갇혀 있습니다. 그들이 탈옥한다면 인왕산을 넘어 제일 먼저 여기로 옵니다. 각하께서 일시 피난하셔서 이 전쟁의 전반을 지도하셔야 합니다.”라고 보고했다.³³⁾ 그럼에도 이승만은 새벽 01:00에 주미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군사원조의 시급함을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에게 알리고 지원을 요청하라고 지시했다.³⁴⁾ 이후 02:00경 신성모 장관을 비롯하여 조병옥(趙炳玉)과 서울시장 이기봉(李起鵬)이 들어와서 “각하, 사태가 여간 급박하지 않습니다. 빨리 피하셔야겠습니다.”라고 말하자, 이승만은 “날보고 서울을 버리고 떠나란 말인가? 서울시민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라고 말했다. 조병옥은 프란체스카 여사와 비서들에게 “각하의 고집을 꺾어야 합니다. 빨리 서둘러 피난을 보내셔야 합니다.”라고 말했다.³⁵⁾ 적 전차가 청량리까지 들어왔다는 경찰 보고³⁶⁾와 서대문형무소가 무너지면 경무대가 위험하다는 김태선(金泰善) 치안국장의 말에 이승만도 할 수 없이 서울역으로 가서 기차를 탔다.³⁷⁾ 이승만 일행이 탄 기차는 기관사를

32) 부산일보사 편, 『임시수도천일』 상, p.24.

33)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1977, p.617.

34) 한표옥, 『한미외교 요람기』, 중앙일보사, 1984, p.86.

35) 부산일보사 편, 『임시수도천일』 상, p. 24;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617.

36) 프란체스카 도너 리, 『프란체스카의 난중일기』, p.25.

37) 부산일보사 편, 『임시수도천일』 상, p.26.

찾느라 지체하다가 04:00에야 비로소 서울역을 출발했다.

이승만은 27일 11:40에 대구에 도착하자, “[내가] 일생일대의 실수를 저질렀어. 열차를 돌리게, 그리고 조재천 경북지사와 제3사단장 유승렬 대령을 불러오라.”고 말해 두 사람이 역까지 나왔다. 이승만은 이 두 사람에게 “국민들을 격려해서 한 뭉치가 되어 공산당을 물리치게. 나는 올라갈테니 그쯤 알고 잘들 하라.”고 당부했다.³⁸⁾ 이승만의 지시로 기차를 다시 돌려 16:30에 대전역에 도착했다. 이때 이승만이 서울로 올라가겠다고 하자 이곳에 대기하고 있던 허정(許政) 전 교통부장관이 극구만류하고 이영진 충남지사는 직접 모시고 올라가겠다고 말하는 등 의견이 엇갈려 잠시 주춤하고 있었다.³⁹⁾ 이때 미 대사관의 드럼라이트(Everett F. Drumright) 참사관이 와서 유엔안보리에서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위와 그 결과로 얻어진 유엔의 결의, 그리고 미국의 공식적인 태도를 밝히면서 “이제는 각하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들의 전쟁이다.”라고 말했다.⁴⁰⁾

이승만은 이 말을 듣고 대전 역장실에서 충남도지사 관사로 자리를 옮겼다.⁴¹⁾ 이승만은 27일 24:00경 전쟁 이후 처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이때 이승만이 권총을 꺼내 베개 밑에 넣는 것을 본 비서가 “각하, 무슨 일입니까? 어, 자네가 보았구면. 권총이야.” 이승만이 내민 소형 모젤 권총엔 탄환이 장전돼 있었다. “내 아까 누구 보고 얘기하여 한 자루 구해달라고 했지. 급해지면 나도 한두 놈쯤 거꾸러뜨릴 수 있지 않겠어. 마지막 남은 총알은 우리 몫이고...”⁴²⁾ 이승만은 이때부터 대구와 부산 피난시절 3년 동안 권총을 침대머리 시트 밑에 숨겨 놓고 잠자리에 들었다.

6월 27일 저녁부터 7월 1일 부산으로 이동할 때까지 이승만은 대전에서 전쟁을 지도했다. 6월 28일 아침 이승만은 충남도지사실에서 임시 각료회

38)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618.

39) 위의 책, p.618; 존 톨랜드, 김익희 옮김, 『존 톨랜드의 6·25전쟁』 1권, 바움, 2010, p.58.

40)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610.

41) 프란체스카 도너 리, 『프란체스카의 난중일기』, p.2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610.

42) 부산일보사 편, 『임시수도천일』 상, p.41.

의를 열었고, 이날 회의에서 총무처장관이 신 국방부장관을 경질하고, 대신 이범석 장군을 임명하자고 건의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⁴³⁾

6월 29일 08:30에 무초 대사는 충남지사로 이승만을 예방하고 맥아더 장군의 내한 소식을 전했고, 이튿날 이승만은 수원비행장에서 맥아더 장군과 회동했다. 맥아더 장군의 한강방어선 시찰은 전쟁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 맥아더의 한국전선 결과 보고서가 미 지상군 참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6월 30일 한국 전선에 미 지상군을 참전하기로 결정했고, 여기에 맥아더의 미 극동군이 참전하게 됐다.

이로써 이승만의 미국의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전시 외교노력은 미국의 참전으로 그 결실을 맺게 됐고, 한국군은 이제 강력한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받게 됐다. 이승만은 이제 미국의 참전과 유엔군의 지원에 힘입어 북진통일을 위한 힘찬 거보를 내딛게 됐다.

3. 전시지도자로서 이승만의 역할

(1) 전쟁목표 수립과 북진통일 추진

승만은 전쟁 당일 개성과 동두천이 함락되고, 이튿날 서울의 관문인 의정부도 함락되는 불리한 전황(戰況) 속에서도 북진통일을 부르짖었다. 이승만은 개전 첫날 무초 미국대사를 만나 “6·25가 제2의 사라예보가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통일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⁴⁴⁾

나[이승만]는 자유와 민주제단에 생명을 바치려니와 나의 존경하는 민주국

43) 프란체스카 도너 리, 『프란체스카의 난중일기』, pp.28~29.

44) The Ambassador in Korea(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1950.6.25), *FRUS*, 1950, Vol. VII, pp.129~131.

민들도 끝까지 싸워 남북통일을 이룩해야 할 것이다.⁴⁵⁾

이승만은 그만큼 북한의 남침으로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국제정세의 흐름을 파악한 후 앞으로 한반도의 운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미리 알고 행동했다. 이처럼 이승만은 개전 초기부터 북진통일을 주장했다. 이는 유엔군과 함께 북한의 남침을 응징함과 동시에 1947년 이후 미국의 목표이자 유엔의 목표이며 자신의 목표인 '자주·독립된 통일한국'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이승만은 1950년 7월 10일 한미연합군이 힘겨운 지연작전을 전개하고 있을 때 "이제 38도선은 자연스럽게 해소됐다."고 말했다.⁴⁶⁾

그리고 1950년 7월 13일 이승만은 "북한의 공격으로 과거의 경계는 완전히 사라졌으며, 분단된 한국에선 평화와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⁴⁷⁾ 또한 그는 1950년 7월 19일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소련의 후원으로 수립된 북한 정권이 무력으로 38도선을 파괴하고 남침한 이상 38도선이 더 이상 존속할 이유가 없어졌으며, 이에 전쟁 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며 유엔군의 38도선 돌파의 당위성을 강조했다.⁴⁸⁾

인천상륙작전 성공 후 이승만은 북진통일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내외에 천명했다. 그는 1950년 9월 20일 인천상륙작전 경축대회에서, "지금 세계 각국 사람들이 38도선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으나 이것은 다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본래 우리 정부의 정책은 남북통일을 하는데 한정될 것이요. 소련이 북한을 도와 민주정부를 침략한 것은 민주세계를 토벌하려는 것이므로 유엔군이 들어와서 공산군을 물리치며 우리와 협의하여 싸우고 있다. 이에 우리가 38도선에서 정지할 리도 또 정지할 수도 없다. 지금부터 이북 공산도배를 소탕하고 38도선을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밀고 올라가서

45) 프란체스카, 『프란체스카 난중일기』, pp.31~32.

46) 외무부, 『한국외교 30년』, 1979, p.105.

47)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Embassy in Korea(1950.7.14), *FRUS, 1950*, vol. VII, p.387.

48) 한표육, 『한미외교 요람기』, pp.94~95.

철의 장막을 쳐부술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⁴⁹⁾

그러나 1950년 9월 29일 서울 환도식이 끝난 후 이승만이 맥아더 장군에게 "지체없이 북진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을 때, 맥아더 장군이 "유엔이 38도선 돌파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대답하자, 이승만은 "유엔이 이 문제를 결정할 때까지 장군은 기다릴 수가 있겠지만, 국군의 북진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요. 내가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국군은 북진할 것이다."고 말하고,⁵⁰⁾ 그날부로 정일권 육군총장에게 북진명령을 내려 국군이 38도선을 돌파하도록 했다. 나아가 이승만은 우리 국군이 평양에 먼저 입성하고, 유엔군에 앞서 진격하여 압록강과 두만강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⁵¹⁾

이후 유엔군과 공산군 측과의 휴전협상 과정에서도 한반도 통일을 지향하는 이승만의 북진통일은 그의 전쟁목표로 정립돼 전쟁기간 내내 일관되게 추진됐다. 그는 이를 위해 전쟁 초기 일찌감치 국군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함으로써 유엔회원국이 아닌 한국군이 유엔군에 편입되게 함으로써 유엔군의 일원으로 싸우게 했다. 이러한 조치는 모두 북진통일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북진통일에 반(反)하는 미국과 유엔, 그리고 참전 자유우방국의 어떠한 정책과 결의에 대해서도 이승만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다. 그가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휴전을 결사적으로 반대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다시는 통일의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대통령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번에 38도선을 넘어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진격하여 중공군과 공산군을 완전히 몰아내고 통일을 이룩해야만 가장 큰 민족적 비극을 막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⁵²⁾

49) 대한민국 공보처, 『대통령 이승만 박사 담화집』, pp.39~40.

50) 프란체스카 도너 리, 『프란체스카의 난중일기』, p.166.

51) 위의 책, p.167.

52) 위의 책, p.141.

그렇기 때문에 전시 이승만의 행보에는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 6·25전쟁 기간 이승만에게 이러한 전쟁목표가 없었다면 한국도 베트남 전쟁에서 '자유월남'처럼 공산화되었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이에 미 제8군사령관을 역임했던 테일러(Maxwell D. Taylor) 장군은 이승만을 회고하면서 "한국의 이승만 같은 지도자가 베트남에도 있었다면, 베트남은 공산군에게 패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⁵³⁾ 이처럼 이승만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오로지 국가이익만을 생각하고 행동했다.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었던 반공포로석방은 그 좋은 실례가 됐다.

휴전정책에 반대하는 이승만은 미국에게 골치 아픈 존재였다. 미 제8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을 역임했던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 장군은 이런 이승만 때문에 "자신의 머리털이 많이 빠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가 멀리 어디론가 멀리 가버렸으면 하고 남몰래 바라기까지 했다."며 당시 이승만 때문에 겪은 어려운 심경을 밝히고 있다.⁵⁴⁾ 오죽했으면 미국은 그들의 정책에 고분고분하지 않은 이승만을 제거할 '에버레디 계획(Everready Plan)'까지 수립했을까.⁵⁵⁾ 그렇지만 미국이 이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한국에 이승만한 리더십을 갖춘 반공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승만은 6·25전쟁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오히려 호기로 판단하고 전쟁을 지도해 나갔던 위대한 지도자였다.

이렇듯 전쟁수행 과정에서 보여준 이승만의 북진통일에 대한 지나칠 정도의 집념과 무리수는 미국과 유엔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되었을지 몰라도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로부터는 반드시 달성해야 될 전쟁목표로 전폭적인

53) 프란체스카 지움, 조혜자 옮김, 『이승만 대통령의 건강』, 도서출판 햇불, 2006, p.57.

54) 매튜 B. 리지웨이, 김재관 역, 『한국전쟁: 제2대 유엔군사령관 매튜 B. 리지웨이』, 정우사, 1981, pp.176~177.

55) 에버레디 계획의 주요 내용은 ①반항적인 지도자를 제거하고 미군에 충성하는 지휘관으로 교체할 것 ②불응하는 한국군에 대한 연료와 탄약 공급을 중지할 것 ③포와 공군지원을 철수할 것 ④유엔군사령부 명의로 계엄령을 선포할 것 ⑤유엔군사령부에 의한 군사정부수립을 선포할 것 등이다. "Paper Submitted by the Commanding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Army(Taylor), May 4, 1953" *FRUS 1952~1954*, Vol. XV, Korea Part 1, 1984, pp.965~967. 이 계획은 1953년 5월 29일 국무부와 합동참모본부 회담에서 논의됐다.

지지를 받았다.⁵⁶⁾

(2) 전시 국정수행 및 치안유지

이승만은 전쟁 당일 전국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대통령령 제377호(비상사태하의 법령공포식의 특례에 관한 건)를 공포하여 라디오, 신문,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법령을 공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긴급명령 제1호(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를 하달하여 비인도적인 범죄자를 엄중처벌하기로 했다.⁵⁷⁾

한편 전쟁이 발발하자 38도선 지역을 담당하고 있던 일부 지휘관에 의해 계엄령이 선포됐다. 이는 1949년 11월 24일 법률 제69호로 공포된 계엄법에 따른 것이었다. 계엄법 제1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하도록 했다. 계엄은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으로 구분하고 이의 선포권자는 대통령이였다.⁵⁸⁾ 그런데 교통, 통신의 두절로 인하여 대통령의 계엄선포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계엄법 제6조에 당해 지방을 관할하는 군사책임자가 임시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여기서 군사책임자는 특명의 사령관, 군사령관, 사단장, 병단장, 요새사령관, 위수사령관인 독립단대장, 합대사령장관, 합대사령관, 통제부사령관, 경비부사령관 등이였다.⁵⁹⁾

위 근거에 의거하여 중동부 및 동해안 지역을 담당하던 제8사단장(사단장 이성가 대령)은 전쟁이 발발하자 6월 25일 10:00시부로 사단전투지경내에 경비계엄령을 단독으로 선포하고 이소(李蘇) 대위를 민사부장에 임명하여 강릉의 민정업무를 관장하도록 했다. 또한 사단장은 민사부장으로 하여

56) 남정욱, 『이승만 대통령과 6·25전쟁』, p.197.

57)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611.

58) 경비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질서가 교란된 지역에 선포한다(계엄법 제3조). 비상계엄은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할 사변에 있어서 적의 포위공격으로 인하여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에 선포한다(계엄법 제4조).

59) 계엄법 제6조, 1949.11.24.

금 전황의 추이에 따라 주요 행정기관의 소개와 금융기관의 보유현황 및 직원의 대구로의 철수를 준비하도록 지시했다.⁶⁰⁾

또한 춘천의 중부지역을 담당하고 있던 제6사단장 김종오 대령도 전쟁 발발 당일인 6월 25일 저녁, 육군본부 참모부장 김백일 대령은 전화통화에서 “전황이 매우 불리하다. 당신은 강원도지구계엄사령관이다.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동원권한이 있으니 최선을 다하십시오.”라는 말을 듣고, 전면전쟁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제6사단장은 우선 기동력을 확보하고자 춘천시내와 영월 탄광에 있는 트럭을 모두 징발시키고 춘천에 있는 정부 양곡 등을 확보하여 전투태세를 갖추었다.⁶¹⁾

이승만도 대통령의 자격으로 헌법에 보장된 계엄선포와 긴급조치 및 명령권을 행사하여 민심을 수습하고 전시의 치안유지에 노력했다. 대통령은 헌법 제64조 및 계엄법 제1장(계엄의 선포)의 제1조에 의하여 계엄령을 선포했다. 1950년 7월 8일 계엄령선포시 이승만은 계엄법에 의거 선포의 이유는 “북한의 전면적 불법 무력 침구(侵寇)에 의하여 군사상의 필요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고 했고, 계엄의 종류는 비상계엄으로서 “전라남도과 전라북도를 제외한 남한 전역”을 대상으로 했다. 계엄사령관에는 “육군총참모장 육군소장 정일권”을 임명했다.⁶²⁾ 계엄사령관은 7월 8일 “포고 제1호”에서 “국내의 모든 체제를 전시체제로 전환함으로써 과감한 작전수행을 도모하고 신속한 승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헌법 및 계엄법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되었음을 국민들에게 알렸다.⁶³⁾

이승만도 7월 15일 ‘계엄선포에 대한 대통령 특별담화’를 통해 “작전지역에는 계엄령을 선포하였으니 관민을 막론하고 말을 삼감으로써 무근한 풍설(風說)로 민심을 동요시키거나 국방치안에 손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60)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214.

61)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2권(구권), 1968, p.156. 김백일 참모부장의 말에 의하면, 비록 정부의 계엄령은 7월 8일 선포되었으나, 군에서는 전쟁 당일 이미 지역별로 계엄령을 선포한 것으로 판단된다.

62) 국방부 전사편찬회, 『한국전란 1년지』, 1951, p.C49.

63) 「계엄령 선포」(포고 제1호, 1950. 7. 8), 국방부 전사편찬회, 『한국전란 1년지』, p.C3.

강조했다.⁶⁴⁾ 또한 대통령은 전쟁을 당하여 헌법에 보장된 긴급명령 및 처분권을 행사했다.

또한 이승만은 전쟁 당일부터 휴전 무렵까지 대통령으로서 군사·경제·치안과 관련된 각종의 비상조치를 공포하는 등 전시 국정수행에 필요한 헌정 질서 및 치안유지, 인적 및 물적 동원, 피난민 대책 및 구호, 장교보충 등에 관한 법령 등을 공포하여 시행했다.⁶⁵⁾

(3) 망명 정부의 결사반대

이승만은 전쟁 중 망명정부 운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했다. 망명정부에 대해서는 전황이 불리해질 때마다 미국측에 의해 꾸준히 제기됐다. 즉, 망명정부는 낙동강선 방어 형성 전후와 중공군 개입 이후 미국은 한국 정부의 해외 및 제주도 이전 문제를 제기했다.

낙동강선 방어는 자연적, 군사적, 심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특히 이 선을 군사적으로 안정시켜 이른바 부산교두보를 방어하는 것은 한국의 영토적 실체를 보존한다는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정부는 제주도에 가서 또 하나의 대만을 만들거나, 아니면 인접국이나 다른 지역에서 망명정부가 될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이에 미국 정부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철수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었다. 철수 지역으로는 필리핀, 사모아, 피지의 남양군도, 하와이, 훗카이도 등을 고려했으나, 최종 후보지역은 제주도, 일본, 류큐열도(오키나와 제외), 대만 등으로 선정해 놓고 있었다.⁶⁶⁾

이승만은 미군 참전에도 불구하고 전선이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며 후퇴

64) 「계엄령선포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 특별담화」, 국방부 전사편찬회, 『한국전란 1년지』, p.C3.

65) 국방부전사편찬회, 『한국전란 1년지』, pp.C47~C85; 국방부전사편찬회, 『한국전란 2년지』, 1953, pp.C215~C238; 국방부정훈부, 『한국전란 3년지』, 1954, pp.C120~C177.

66) JCS Decision on Evacuation of ROK Personnel from Korea, February 4, 1951, RG.218, CCS 383.21 Korea(3-19-45), Sec., 81, N.A.; 전쟁기념사업회, 『한국전쟁사: 북한군 침공과 한국군방어』 제3권, 행림출판사, 1992, p.303에서 재인용.

를 하고, 급기야 최후의 보루인 낙동강방어선까지 밀리는 위기인 상황인 1950년 7월 29일 밤, 프란체스카를 불러 도쿄의 맥아더사령부로 떠나라고 했다.⁶⁷⁾ 이승만은 거의 명령조로 “마미, 적이 대구방어선을 뚫고 가까이 오게 되면 제일 먼저 당신을 쏘고 내가 싸움터로 나가야돼요. 그쪽에 부탁을 해놓았으니 당신만은 여기를 떠나주세요.”라고 강권하다시피 했다.⁶⁸⁾ 프란체스카는 “절대로 대통령의 짐이 되지 않을 것이며 최후까지 대통령과 함께 있겠다.”며 잔류의사를 밝혔다. 프란체스카의 말에 감동한 이승만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나는 다시는 망명정부를 만들지 않을 거야. 우리 아이(병사)들과 같이 여기서 최후를 마칩시다.” 하며 그녀의 등을 토닥여주었다.⁶⁹⁾

낙동강 전선에서 전투가 치열하게 전개되던 1950년 8월 9일 임시수도 대구에서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방·내무·교통·상공·재무부장관으로 구성된 전신내각이 소집됐다. 전신내각에서는 비상시에 정부를 어디로 옮겨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이승만은 “최악의 경우 정부는 제주도도로 옮겨야 하겠지만, 자신은 대구를 사수하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⁷⁰⁾

또한 낙동강 방어선이 최악의 위기에 빠진 8월 14일 적의 총공세에 의해 대구가 적의 공격권에 들어가자 무초 미국대사는 정부를 제주도도로 옮길 것을 건의했다.⁷¹⁾ 무초는 그곳이 적의 공격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최악의 경우 남한 전체가 공산군에 점령된다 해도 망명정부를 지속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초가 한참 열을 올려 얘기하고 있을 때 이승만은 허리에 차고 있던 모젤권총을 꺼내들었다. 순간 무초의 입이 굳어져버렸고 얼굴색도 하얗게 질려버렸다. 옆에 있던 프란체스카도 깜짝 놀랐다. 이승만은 권총을 아래위로 흔들면서 “이 총은 공산당이 내 앞까지 왔을 때 내 처

67) 프란체스카 도너 리, 『프란체스카의 난중일기』, p.69.

68) 위의 책, p.69.

69) 위의 책, p.69.

70) 위의 책, p.85.

71) 위의 책, p.98.

를 쏘고 적을 죽이고 나머지 한 알(발)로 나를 쏠 것이요. 우리는 정부를 한반도 밖으로 옮길 생각은 없소. 모두 총궐기하여 싸울 것이요. 결코 도망가지 않겠소.”라고 단호히 말했다. 이승만이 권총으로 어쩔 것은 아니지만 긴장한 무초 대사는 더 이상 말을 못하고 혼비백산하여 돌아갔다고 한다.⁷²⁾

한편 낙동강 방어전시 육·해·공군총사령관 겸 육군총참모장 정일권 소장도 1950년 9월초 대구방어의 전략적 요충지인 영천이 적에게 점령당했을 때 미 제8군사령관 워커(Walton H. Walker) 중장으로부터 망명정부에 관한 내용을 듣고 이를 이승만에게 보고한 적이 있다.⁷³⁾ 워커 장군은 “이것은 극비 중의 극비입니다. 제너럴 정과 나, 두 사람만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당분간은 이승만 대통령한테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군 중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가장 잘 싸우는 2개 사단과 각계각층의 민간인 10만명을 극비리에 선정해 주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⁷⁴⁾ 정일권은 “[이것이] 누구의 구상입니까? 워커 장군의 생각입니까?”라고 묻자, 그는 “맥아더 사령관의 극비 긴급지시입니다.”라고 말했다.⁷⁵⁾

워커는 9월 7일 영천방어가 가망 없어졌을 때 맥아더 사령관이 미 제8군의 전면철수를 고려하라고 했다면서 정일권에게 이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었다. 한국군 2개 사단과 민간인 10만명에 대한 철수계획은 워커 자신의 생각이라고 했다. 워커는 정 장군이 승낙하면 맥아더 사령관에게 건의하여 수송선박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철수장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 군도라고 했으나, 정일권은 괌 아니면 하와이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⁷⁶⁾

정일권은 사태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이튿날 새벽 부산경무대로 이승만을 긴급 방문하고 미군 철수계획을 보고했다. 꼴꼴한 자세로 눈을 지그시 감고 보고를 받던 이승만은 “워커, 그 사람 보기보다는 여간 겁쟁이가 아니구

72) 위의 책, p.98.

73) 정일권, 『전쟁과 휴전』, p.84.

74) 위의 책, p.85.

75) 위의 책, p.86.

76) 위의 책, p.86.

던. 망명의 설움을 안고 하와이에서 외롭게 일본 제국주의와 싸웠던 나, 이승만에게 이제는 겨레를 이끌고 다시 그곳으로 망명하라는 것인가!”라며 격노했다. 그리고서 이승만은 “워커 장군에게 말하십시오. 나,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은 누가 가자고 해서 나의 조국을 등질 비겁자가 아니라고 말하십시오. 나, 이승만은 영천이 무너져 공산군이 여기 부산에 오면 내가 먼저 앞에 나서서 싸울 것이요. 그래서 내 침실 머리맡에는 언제나 권총이 준비돼 있다고 말하십시오!”라고 의연하게 대처했다.⁷⁷⁾

이승만은 계속해서 “가려거든 떠나라고 하시오. 미군들은 왜 여기에 왔는가. 공산침략군을 물리치고 정의와 자유를 위해 온 것 아닌가. 그런데도 전황이 위태롭다 해서 가고 싶다면 자기들끼리만 떠나라고 하시오!”라며 강한 어조로 말했다.⁷⁸⁾

한국 망명정부 문제는 중공군 개입 이후 유엔군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다시 제기됐다. 중공군의 신정공세에 따라 미국은 최악의 경우 망명정부를 유지하여 저항을 계속하도록 한국을 지원할 것을 정책목표로 설정했다. 미국 정부가 1951년 1월 12일 마련한 유엔군의 전쟁지도지침을 보면, “유엔군은 일단 일본으로 철수시키되, 한국정부와 군경을 제주도로 이전시켜 저항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었다.⁷⁹⁾

미국이 극비리에 추진한 한국 정부의 제주도 이전계획에 포함된 대상인원은 행정부와 그 가족 36,000명, 한국 육군 260,000명, 경찰 60,000명, 공무원·군인 및 경찰가족 400,000명, 기타 요원 등 총 100만 명으로 판단했다. 미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국인을 일본으로 이동시키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⁸⁰⁾

이처럼 6.25때 이승만 같은 국제정세를 꿰뚫는 강단있는 지도자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전황이 불리해 질 때마다 제주도 및 해외에 망명정부를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이다.

77) 위의 책, p.86.

78) 위의 책, p.86.

79)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중, 1996, p.351.

80) 위의 책, p.352.

(4) 국군 통수권자로서 전쟁지도와 전력증강

이승만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위임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군사사절단을 편성했으며, 또 헌법상에 명시된 국군총사령관을 임명했고, 전쟁 초기 미군 병력을 보충하기 위한 카투스사(KATUSA) 제도의 도입을 비롯해 전쟁 이전 현역 및 예비역을 합쳐 14명에 불과했던 장성들을 부대증편과 지휘구조에 맞춰 대장(大將)으로 임명하는 등의 군 인사권을 행사했다.

이승만은 맥아더 장군이 한국전선 시찰 때 육군총참모장 교체 제의와 전쟁초기 실패 책임을 물어 채병덕 장군을 그 직에서 해임하고 정일권(丁一權) 육군준장을 소장으로 승진시켜 육군총참모장 겸 육·해·공군 총사령관에 임명했다.⁸¹⁾ 정일권의 육군총장 기용은 이승만에 의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승만은 6월 30일 18시경 임시 집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충남도지사실로 정일권을 호출했고, 정일권은 수원에서 출발하여 대전에 21:00에 도착했다. 이승만이 정일권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때 신국방장관이 배석했다. 이승만이 준 임명장에는 대통령 친필로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임명장. 육군준장 정일권, 명(命) 육군소장. 보(補) 육·해·공군총사령관 겸 육군총참모장. 1950년 7월 1일 대통령 이승만”이라고.⁸²⁾ 이승만이 정일권 장군을 육해공군총사령관에 임명한 것은 헌법 제72조에 명시된 ‘국군총사령관 임면(任免)’에 근거를 두고 실시한 인사였다.⁸³⁾

이승만은 7월 7일 유엔안보리에서 유엔군창설결의안이 채택된 다음날 맥

81) 해롤드 노블, 박실 역, 『비록 전화속의 대사관』, 한성사, 1980, p.105; 짐 하우스만·정일화 공저, 『한국대통령을 움직인 미군 대위』, p.213.

82) 정일권, 『전쟁과 휴전』, p.38.

83) 「제헌헌법」 제72조 7항. 전쟁 발발 당일 공군총장이던 김정렬 장군은 채병덕 육군총참모장에게 “형님! 오늘부터 형님이 육해공군 총사령관이 되셔야 하겠습니까. 그래야 나와 해군의 김영철 부장을 거느리고 3군을 통수하면서 긴급한 전쟁상황에 대비하실 것 아닙니까?” 해서 이때부터 채병덕 장군이 육해공군 총사령관이 되었다고 한다. 김정렬, 『김정렬 회고록』, 을유문화사, 1993, pp.140~142. 그렇지만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국군총사령관은 당시 헌법에 나와 있는 직책이고 대통령에 의해서만 임명될 수 있었다.

아더 원수가 유엔군사령관에 임명되자, 그는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맥아더 장군에게 위임했다. 이승만은 7월 14일 맥아더 장군에게 보낸 개인 서신에서 “현재의 전쟁상태가 계속되는 동안(during the period of the continuation of the present state of hostilities)” 한국의 육·해·공군에 대한 지휘권을 맥아더에게 위임한다고 밝혔다.⁸⁴⁾ 이에 맥아더 장군은 7월 17일 주한미 지상군총사령관 겸 제8군사령관인 워커(Walton H. Walker) 장군에게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 행사를 지시했다.⁸⁵⁾ 7월 18일 맥아더 장군은 주한미국대사를 통해 이승만에게 답신을 보냈다. 그러나 미 제8군사령부의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는 제8군과 한국의 육군본부가 상하관계라는 위치 때문에 작전을 하는데 있어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었다. 이에 제8군사령관 워커 장군은 작전을 실시함에 있어서 한국의 육군본부에 명령하기보다는 요청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한국군과 조화를 이루며 효율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갔다.⁸⁶⁾

또한 이승만은 전쟁 초기 미 지상군의 병력 보충을 위해 카투스사(KATUSA: Korean Augmentation to the US Army) 제도를 도입했다. 카투스란 미군 부대에 증원된 국군병력이란 의미로 1950년 8월 15일 이승만과 맥아더 간의 합의에 따라 공식화되었으며, 이것의 주목적은 미군 사단의 부족병력을 보충하여 전력을 유지하는 데 있었다.⁸⁷⁾ 그 결과 미군은 낙동강 전선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하는 미 제7사단 병력 24,854명 중 카투스사 8,637명이 참전할 수 있었다. 이승만 정부의 노력으로 6·25전쟁 기간 중 카투스사 43,660명이 미군과 함께 참전하여 11,365명이 전사 또는 실종됐다.⁸⁸⁾

84) “The Korean President Syngman Rhee to the American Embassy(1950.7.1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편, 『국방조약집, 1945~1980』 제1집, 1981, pp.629~631; 서울신문사, 『주한미군 30년』, 1979, p.169.

85) James F.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Washington D.C., GPO, 1990), p.102.

86) Roy Kenneth Flint, “The Tragic Flaw: MacArthur, The Joint Chiefs, and the Korean War”, Ph. D. dissertation, Duke University, 1976, p.98; 백선엽, 『군과 나』, p.183.

87)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상, p.347.

88) 남정욱, 『6·25전쟁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 삼우사, 2010, p.257; 육군본부,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 군사연구실, 1968, p.364.

그러나 중공군 개입 이후 이승만은 유엔군과 작전수립과정에서 한·미간에 갈등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군부사령관을 한국군 장성으로 임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미국이 언어장벽 및 작전상의 혼선을 들어 한국군 부사령관 임명에 반대하자 대신 작전계획 수립과정에서 한국의 의견을 반영할 한국군사사절단(Korean Liaison Group)을 편성하여 유엔군사령부에 파견했다.⁸⁹⁾ 이승만의 한국군 장성이 맡는 유엔군부사령관 제도는 오늘날 한미연합군사령부의 부사령관 제도와 일맥상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승만은 군의 문민통제 우위와 3군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이승만은 전쟁 기간 국방을 책임지는 국방부장관에 민간 출신들을 전격적으로 기용하여 전쟁을 수행했다. 전쟁 3년 중 전반기 2년간을 신성모와 이기봉이 국방부장관직을 맡아 수행했다. 이후 이승만은 전후 군의 전력증강을 위해 육해공군 출신의 장성들을 번갈아 가며 국방부장관에 임명했다. 육군총장 출신의 신태영 장군, 해군총장 출신의 손원일 제독, 공군총장 출신의 김정렬 장군이 그들이다.⁹⁰⁾

이승만은 전쟁 이전 일부 대령이 보직했던 사단장을 준장 또는 소장으로 격상하여 미군과 그 격을 맞추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장성들도 전쟁 이전에는 현역과 예비역 등 총 14명에 불과했으나⁹¹⁾, 미군 참전 이후 육군본부 참모 및 사단장에 보직된 대령들을 장군으로 진급시켰다. 또한 전쟁 초기 군단 참모장과 연대장을 지낸 대령들을 장군으로 진급시켜 사단장에 보직했다. 그리고 군단장 보직을 받은 유재홍과 김백일을 준장에서 소장으로 진급시켰다. 이후 군단장에 백선엽, 이형근, 정일권, 강문봉 장군 등을 발탁하여 등용했다.⁹²⁾ 총참모장 가운데 육군은 채병덕, 정일권, 이종찬, 백선

89) 김정렬, 『김정렬회고록』, pp.151~153.

90) 남정옥, 『6·25전쟁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 pp.109~110.

91) 6·25당시 장성은 육군현역 9명(채병덕 소장, 김홍일 소장, 이웅준 소장, 신태영 소장, 유재홍 준장, 이형근 준장, 송호성 준장, 정일권 준장, 이준식 준장)과 예비역 2명(김석원·원용덕 준장 준장)이고, 공군 2명(김정렬 준장, 최창덕 준장), 해군 1명(손원일 소장) 등 14명이었다.

92) 「장교 자력표」,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자료.

엽 장군이 역임했고, 해군은 손원일 제독이, 그리고 공군은 김정열과 최용덕 장군이 역임했다.

한편 국군 최초의 중장은 1951년 2월 22일 육군 중장으로 진급한 정일권 장군이었고⁹³⁾, 최초의 대장은 백선엽 장군이 차지했다. 그는 1953년 1월 31일 대장으로 진급했다. 미군은 병력 20만 명당 1명의 대장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으나, 당시 국군으로서는 누구도 대장에 승진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시기였다.⁹⁴⁾ 1953년 2월 백선엽 대장이 육군총장으로 재임시 밴플리트(James A. Van Fleet) 장군 후임은 테일러 중장이었다. 이는 이승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파격적인 인사였다.

이승만은 국군 장병의 사기양양을 위해 군목(軍牧)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했다. 프란체스카 여사에 의하면 군목제도의 설치는 해군총장 손원일 제독의 건의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손 제독은 “어느 국군사병이 일선에서 전사하면서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며 평안한 마음으로 숨을 거둘 수 있게 해 달라.”는 청원을 들고 와서 대통령에게 건의했던 것이다.⁹⁵⁾

감리교 목사의 아들인 손 제독은 “해군에는 이미 몇 사람의 목사가 종군하고 있어서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고 했다.⁹⁶⁾ 대통령은 국군 창설 당시 이범석 장군과 군목제독에 대해 상의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군에는 기독교 신자도 있고, 불교·천주교·원불교 신자도 있기 때문에 특정 종교인을 위한 군목제도는 차차 연구해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범석 국무총리의 의견에 따라 그때까지 미루었다. 그러나 이번 전시 중에 국군의 절실한 요청이 있자 이승만은 신성모 국방부장관에게 군목제도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⁹⁷⁾

이에 따라 국방부는 1950년 12월 21일 「대통령비서 국방 제29호」를 통해 육군본부에 군목제도를 설치한데 이어, 1951년 2월 27일에는 국본일반명령

93) 정일권, 『전쟁과 휴전』, p.300. 두 번째 중장 진급은 1952년 1월 12일부로 진급한 이종찬 육군총참모장, 손원일 해군총참모장, 백선엽 제2군단장 등 3명이었다.

94) 백선엽, 『군과 나』, p.262.

95) 프란체스카 도너 리, 『프란체스카의 난중일기』, p.249.

96) 위의 책, p.249.

97) 위의 책, p.249.

제31호에 의거 육군본부 인사국에 군승과(軍僧課)를 설치했다. 군승과는 1951년 3월 10일 군목과(軍牧課)로 개칭되면서 김형도 목사가 과장에 보임됐다. 전쟁 때 군목과는 장병의 사상·신앙·인격지도, 종교도덕 교육, 야전예배를 수행해 장병의 전투의식을 고취시켰고, 국군이 종교적 신앙에 입각해 멸공성전(滅共聖戰)을 완수케 했다. 휴전이후인 1954년 군목과는 군중감실로 승격하여 군의 종교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했다. 이렇듯 이승만은 반공과 한국의 기독교적 국가건설을 바탕으로 전시에 군중제도를 도입하여 신앙전력화를 꾀했다.

특히 이승만은 전쟁의 와중에 국군의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전쟁 발발 당시 육군은 8개 사단 23개 연대였으나, 휴전 무렵 18개 사단으로 증설되었고 병력도 94,000명에서 55만 명으로 증강됐다.⁹⁸⁾ 즉, 1950년 7월 5일과 7월 15일 사이에 제1·제2군단을 창설했고 8월부터 11월에는 개전 초에 해체되었던 제2·제5·제7사단 등 3개 사단을 재창설했다. 이어 제9·제11사단을 새롭게 창설했으며, 10월 16일에는 제3군단을 창설했다. 이후 제2·3군단은 중공군의 한국군에 대한 집중 공세에 의해 커다란 손실을 입고 해체됐다. 그러나 제2군단은 1952년 4월 5일에, 그리고 제3군단은 1953년 5월 1일에 재창설했다. 특히 전쟁 기간 중 국군은 9개의 전차중대를 보유하고 됐다.⁹⁹⁾

해군은 전쟁 당시 4개 정대에 33척의 함정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휴전 무렵 해군은 6개의 전대를 기간으로 1개 함대를 창설했고, 병력도 6,954명에서 12,000명 수준으로 증강됐다.¹⁰⁰⁾ 공군도 1개의 전투비행단과 1개의 훈련비행단 등 2개의 비행단으로 성장했고, F-51전투기 80대를 포함하여 총 110대의 항공기를 보유했다. 병력도 1,897명에서 11,000명으로 증원됐다.¹⁰¹⁾ 이는 이승만이 휴전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미국으로

98) 국방부, 『국방사』 1, p.337.

99) 국방부, 『국방사』 2, 1987, p.343.

10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요약』, 1986, p.81.

101) 위의 책, p.85.

부터 얻어낸 일종의 전리품이었다.¹⁰²⁾ 이로써 이승만은 전쟁 이전 미국으로부터 얻고자 했던 전투기와 전차 등을 확보하게 됐다.

(5) 전선지역 방문과 장병 격려

6·25때 이승만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역할과 소임을 다했다. 80세를 바라보는 노령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주 전선시찰을 통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시켰다. 그를 '한국 현대사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학자·정치가·애국자'라고 칭송했던 미 제8군사령관 벤플리트 장군은 전쟁이 끝난 다음 이승만의 당시 모습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내[벤플리트] 재임 거의 2년간을 [이승만은] 평균 1주일에 한 번씩 나와 함께 온갖 역경을 마다않고 전방과 훈련지역을 시찰했다. 추운 날 지프를 타야 할 때면 죄송하다는 내 말에 미소로 답하고는 자동차에 올랐다.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그의 밝은 얼굴과 외투 밖으로 보이는 백발은 검은 구름 위에 솟은 태양처럼 빛났다.¹⁰³⁾

이승만은 장병들과 고난을 같이한다는 애군(愛軍)정신으로 계절이나 기후에 관계없이 노구(老驅)를 이끌고 전선지역을 방문, 격려했다. 그의 전선시찰은 한 여름의 폭염과 장마, 겨울의 혹독한 추위에 관계없이 전쟁이라는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뤄졌다.

낙동강전선의 최대 위기인 영천전투가 끝날 무렵 이승만은 영천의 국군 제8사단을 방문하고 격려했다. 이때 주변에는 적의 박격포가 떨어지는 상황인데도 전선을 방문하고 장병들을 격려해 주었다.¹⁰⁴⁾

또한 그는 1951년 9월 중동부전선의 최대 격전지인 단장의 능선 전투를

102) CINCUNC to Joint Chiefs Staff(1953.6.28), *FRUS 1952~1954*, Vol. XV, Part 2, pp.1280~1282; Rhee to Eisenhower(1953.7.11), *FRUS 1952~1954*, Vol. XV, Part 2, pp.1368~1369.

103) 로버트 올리버, 황정일 역, 『신화에 가린 인물 이승만』, p.329.

104) 정일권, 『전쟁과 휴전』, p.97.

앞둔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부산에서 강원도 양구의 편치불까지 쌍발기와 연락기를 번갈아 타고 최전선지역을 방문했다. 그가 탄 연락기는 조종사 뒤에 겨우 한 사람이 앉도록 마련된 뚜껑이 없는 비무장 소형비행기였다.¹⁰⁵⁾

이승만이 전선시찰을 마치고 임시 경무대가 있는 부산으로 복귀할 때 기상악화로 부산에 착륙하지 못하고 연료부족으로 대구로 회항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그곳도 짙은 구름에 휩싸여 착륙할 수 없게 되자 할 수 없이 열게 안개가 깔린 포항 근처 비행장에 불시착했다. 예정에 없던 비상착륙으로 뒤늦게 연락을 받은 인근부대에서 이승만 일행을 태울 차량을 뒤늦게 보냈다. 저녁 7시 30분쯤 비행장 근처의 소령이 지휘하는 부대에 도착한 이승만 일행은 먹다 남은 음식을 데워 먹은 후 폭우가 그치기를 기다려 밤 11시 지프에 분승하여 인근 역으로 이동해 열차를 타고 부산에 도착했다. 그날은 혈기왕성한 젊은이에게도 힘든 하루였으나 그는 내내 웃음을 잃지 않고 농담을 하며 주위 사람들을 위로했다.¹⁰⁶⁾

특히 이승만은 1952년 10월 중부전선에서 백마고지를 놓고 중공군과 혈전을 치르고 있는 국군 제9사단을 방문하여 “귀관들이 막강한 미군 사단들 못지않게 용감하게 싸워 국위를 선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용기를 얻어 국정을 보살피고 있다.”고 격려했고, 부상병들에게 “후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새겨 뒤야지...”라며 눈물을 머금은 채 말문을 잇지 못했다. 이승만의 격려를 받은 김종오 사단장은 “노(老)대통령이 내손을 꼭 잡고 눈물을 적실 때 가슴이 메웠으며, 기필코 이 전투를 이기고야 말겠다는 각오를 되새기게 됐다.”고 술회했다. 이승만은 백마고지 전투에서 국군 제9사단이 승리하자 이를 격려하기 위해 부슬비가 오는 곳도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경비행기로 전선지역을 방문하여 사단 장병들을 감읍케 했다.¹⁰⁷⁾

이승만의 전방의 전선시찰은 날씨나 기후에 관계없이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에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었으나, 그는 늙은 아버지가 사

105) 로버트 올리버, 황정일 역, 『신화에 가린 인물 이승만』, p.330.

106) 위의 책, pp.330~331.

107) 전사편찬위원회, 『백마고지전투』, 1984, pp.243~244.

랑하는 자식을 찾아가듯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전선지역을 방문하여 상무 정신에 바탕은 둔 국가수호정신을 역설했다. 그는 전선시찰을 통해 자칫 후방에서 망각할 수 있는 통수권자로서의 막중한 책무를 추스르는 한편, 죽음을 앞두고 작전에 투입될 장병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진정한 국군의 통수권자였다.

(6) 반공포로 석방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이 정전협정을 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 얻어낸 최대의 성과였다. 전쟁 기간 중 유엔군과 공산군 간에 휴전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이 진행되자 한국은 범국민적 차원에서 휴전회담을 결사적으로 반대했다.

더욱이 1953년에 이르러 휴전협상이 타결될 단계에 접어들자 국내에서는 휴전반대운동이 전개되면서 이승만은 휴전회담이 성립될 경우, 국군을 유엔군으로부터 분리시킬 준비를 할 것이며, 필요시 단독이라도 공산군과 싸울 것이라는 의사를 미 국무부에 통보했다.¹⁰⁸⁾

미 국무부는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이승만의 복진 정책을 포기하도록 종용하면서 정전협정체결 및 수락 이후에도 미국은 미국과 필리핀, 미국과 일본, 앤저스(ANZUS) 조약과 같은 상호방위조약 및 동맹조약을 한국과 체결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승만은 휴전 전에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앞세워 완강히 거부반응을 나타냈다.¹⁰⁹⁾

또한 이승만은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중공군의 북한잔류는 한국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대공(對共) 유화적인 휴전협정의 체결보다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하에 공산군과 유엔군의 동시 철수”를 제의했다.¹¹⁰⁾

108)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 1945~1994』, 1995, p.99.

109) 남정옥, 『이승만 대통령과 6·25전쟁』, p.217.

110) 온창일, 「한국전쟁과 한미상호방위조약」, 『군사』 제40호, 2000, p.127.

이승만의 서신에 대해 아이젠하워는 휴전협정의 체결 및 수락과 한국통일 문제는 정치적 접근에 의해 해결한다는 원칙을 한국이 수락하면, 상호방위조약 체결과 한국의 경제부흥을 위한 경제원조를 제공할 것이라는 내용의 답신을 보내왔다. 하지만 이승만은 계속되고 있는 대공 유희적인 휴전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그러한 휴전과 연결되는 상호방위조약은 그 실효성이 적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중공군의 철퇴와 유엔의 제반 결의의 이행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이승만은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촉구하기 위한 압력조치의 하나로 반공포로 석방을 단행했다.¹¹¹⁾

반공포로 석방은 이승만과 국군헌병총사령관 원용덕 장군에 의해 비밀리에 추진됐다. 이것은 이승만이 국군지휘관에게 혹여 해가 될까봐 백선엽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군 수뇌부에게 비밀로 해 그들을 보호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승만으로부터 직접 비밀지령을 받은 원용덕은 철저한 보안속에 이 일을 처리해 나갔다. 이승만은 이를 위해 이미 3개월 전인 1953년 3월 24일 대통령령 제153호에 의거 국군헌병총사령부를 국방부내에 설치했고, 원용덕 육군소장을 중장 진급과 동시에 헌병총사령관에 임명했다. 그리고 휴전협상의 마지막 관문인 포로문제가 타결되기 2일전인 6월 6일 원용덕을 경무대로 불러 포로석방문제를 비밀리 연구하도록 지시했고, 원용덕은 포로문제가 타결된 6월 8일 경무대로 이승만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이승만은 “나의 명령이니 반공한인애국청년들을 석방하라. 가만(可晚).”이라는 친필명령서를 내렸다.¹¹²⁾ 이때 이승만은 일부에서 반공포로를 은밀히 도피시키자는 의견을 내자 정정당당하게 석방시키라고 지시했다.¹¹³⁾

원용덕은 이승만의 밀명을 은밀히 추진했다. 이 일은 국방부장관과 육군총장에게도 비밀로 했다. 모든 일은 육군헌병사령부와 포로경비부대를 통해

111) 차상철, 「이승만과 한미상호방위조약」, 『한국과 6·25전쟁』, 연세대 현대한국학연구소 제4차 국제학술회의(2000), p.206

112) 남정옥, 『이승만 대통령과 6·25전쟁』, p.205.

113) 박실, 『한국외교비사』, p.242.

진행됐다. 작전은 6월 18일 24:00에 일제히 개시되어 27,000여명의 반공포로를 석방했다. 6월 19일 06:00 원용덕은 중앙방송국에서 반공포로석방에 대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의 목숨을 건 대명(大命)이 성공한 순간이었다. 이를 들은 애국학생들은 헌병총사령부 정문 앞으로 몰려들어 “원용덕 장군 만세!”를 외쳤다. 이승만은 원용덕에게 ‘義勇(의용)’이라는 휘호를 하사하고 그의 공을 치하했다.¹¹⁴⁾

이에 당황한 미국은 1953년 6월 25일 대통령 특사로 로버트슨(Walter S. Robertson) 국무부차관보를 한국에 급파하여 이승만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첫째, 미국은 평화적 수단으로 한국을 통일하는데 계속 노력한다. 둘째, 전후 한미방위조약을 체결한다. 셋째, 장기적인 경제 원조를 제공한다.¹¹⁵⁾

이를 토대로 이승만은 휴전문제와 주한미군 감축 등 긴급 현안문제를 로버트슨 특사와 협의했다. 그 결과 한미 간에 정전 후 상호방위조약 체결, 경제 원조 제공, 한국군의 20개 사단 미 해·공군력 증강 등에 대해 합의했다.¹¹⁶⁾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인 1953년 8월 4일 딜레스는 한국에 도착하여 8월 8일까지 이승만과 상호방위조약에 관해서 논의했다. 이 조약은 1953년 8월 8일 서울에서 가조인됐고, 10월 1일 워싱턴에서 정식 조인됐다. 미국은 어렵게 확보한 휴전을 지키기 위하여 이승만의 요구를 대폭 수용함으로써 한국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사실상 떠맡게 됐다.¹¹⁷⁾

이로써 이승만은 6·25전쟁 이전 한반도에서 전쟁 방지를 위해 미국에게 그토록 매달리며 요청했던 태평양동맹, 상호방위조약, 미군 주둔을 모두 성사시켰다. 이는 이승만이 아니면 그 어떤 지도자도 해낼 수 없는 한국 외교사상 최대의 성과였다.

114) 남정욱, 『이승만 대통령과 6·25전쟁』, p.205.

115) 한배호, 「한·미방위조약체결의 협상과정」, 『군사』 제4호, 1982, p.169.

116)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 1945~1994』, p.101.

117) 온창일, 「전쟁지도자로서 이승만 대통령」, p.233.

4. 맺음말

이승만은 정부 수립 이후 '국가건설(state building)'이라는 시급한 당면 과제에도 불구하고 전쟁대비를 위해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고, 전쟁 중에는 전시내각과 군은 물론 전 국민을 반공정신으로 일치단결시켜 북진통일을 목표로 전쟁을 일관되게 지도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을 수호했다. 또한 전후에 대비하여 그는 국가의 안위와 민족의 생존권을 위해 국군의 전력증강을 도모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지구상에 존재케 한 역량 있는 전시 최고의 국가지도자였다. 이승만의 전지도자로서의 이러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 지상군의 증원을 보장했다. 북한 김일성은 전쟁 모의과정에서 스탈린이 가장 우려했던 미군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신속히 남해안까지 진출하여 미 증원군의 한반도 상륙을 막아냄으로써 전쟁을 1개월 내에 끝내고 한반도에 공산정부를 수립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군 제14연대와 제6연대의 반란사건 이후 국군은 숙군을 통해 반공군대로 무장되었다. 이로 인해 국군은 전쟁 초기 불리한 상황에서도 적에게 개별 또는 집단으로 투항하지 않고 계속 후퇴하면서 축차적인 방어선을 형성하여 미군이 상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만약 국군의 방어선이 좀 더 일찍 붕괴되었거나, 미군이 좀 더 늦게 증원되었다면 한국에서의 전쟁 상황은 회복하기 어려운 단계로 접어들었을 것이다. 이는 이승만 정부가 미 군정기 군과 사회에 침투하여 암약하고 있던 공산당 세력을 일소하고 군을 튼튼한 반공군대로 육성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둘째, 국군을 유엔군의 일원으로 싸우게 하는 한편, 전쟁을 미국과 유엔의 책임하에 두도록 조치했다. 이승만은 개전 초기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미국의 맥아더 장군이 아닌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함으로써 유엔회원국이 아닌 한국의 군대가 유엔군과 함께 나란히 전쟁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제평화를 파괴하고 침략한 북한에 대해 응징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 전쟁이

단순히 남북한 간의 전쟁이 아니라 유엔에 의해 주도되는 국제전쟁(international war)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시켜 전쟁 수행의 책임을 미국과 유엔이 책임 지도록 했다.¹¹⁸⁾ 이승만이 정전협정에 한국대표로 하여금 서명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도 이런 까닭에서이다. 그는 어디까지나 이 전쟁이 북한이 유엔에 도전하고 평화를 파괴한 전쟁이라는 점을 주지시켜 유엔으로 하여금 끝까지 책임을 지게 했다. 만약 한국이 정전협정에 서명했다면 미국은 베트남전쟁에서처럼 ‘자유월남’이 서명한 했던 것을 구실로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키지 않았거나 조기에 철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승만은 이런 우려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선견지명이 있는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셋째, 한반도 통일과 북진통일이라는 전쟁목적과 목표를 확고히 추진했다. 이로 인해 이승만은 결과적으로 한국의 국권을 수호했을 뿐만 아니라 전후 미국으로부터 한미동맹과 한국군 전력증강이라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었다. 전적으로 지원받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확고한 전쟁목표 아래 국군의 통수권자로서 의연하게 군림했고, 도움을 주고 있는 미국에게 오히려 큰소리를 치면서 전쟁의 주도권을 행사했다. 이승만에게 그러한 뚜렷한 국가적 목표가 없었다면 한국은 이미 공산화되었거나 제주도 및 태평양 군도의 어느 섬에 망명정부 형태로 남게 되었을 것이다.

넷째, 국가이익에 바탕을 둔 전시외교를 펼쳤다. 이승만은 전쟁 기간 내 내 오로지 국가이익을 위해 처신했고 행동했다. 이에 미국이 고분고분하지 않은 이승만을 제거할 계획까지 수립했으나, 미국이 이를 수용한 것은 이승만을 대신할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반공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

118) 이승만은 38도선 문제 및 전쟁의 성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즉, 그는 “38도선 문제에 대해서는 본래 38도선은 없는 것이다. 사상적 대립은 있을지 모르나 우리는 처음부터 이것을 허용 안했다. 이 38도선 문제를 여태껏 참아온 것은 국제적 관계였는데, 이번에 공산군이 이 선을 넘어 불법 남침한 것이니 자연 없어졌다. 그것은 소련이 북한괴뢰군으로 하여금 남침을 시켜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는데 있어 유엔민주진영이 민주우방을 살리기 위하여 일어나 국제 전쟁이 됐다. 그럼으로 이번 전쟁은 한국전쟁이 아니고 국제 전쟁이라고 대통령은 설명했다.” 『프란체스카 도너 리, 『프란체스카의 난중일기』, p.155.

는 국가이익을 위해 반공포로 석방 등 전후 미국의 안전보장을 얻기 위해 고집을 피우고 완고하게 행동했지만 합리성과 국제정세를 정확히 읽고 판단할 줄 아는 견식이 풍부한 국제정치지도자로서 전쟁의 주체인 미국의 생각을 미리 읽고 행동했기에 가능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감을 갖고 미국과 여러 정책을 놓고 협의할 때도 먼저 원칙론을 내세워 강력히 주장을 펴며 충돌하지만, 이는 미국으로부터 보다 많은 실리를 얻어내기 위함이었다. 휴전협상 무렵 그가 강력히 주장했던 단독 북진통일도 한국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이승만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유엔군사령관 클라크 장군은 이러한 이승만을 보고 “명분을 적절히 구사해 실리를 얻어내는 외교적 수완을 도대체 어디에서 터득했는지 알 수 없다.”며 탄복했다.¹¹⁹⁾

다섯째, 한국에서 싸웠던 한국과 미국의 장군들로부터 진정한 애국자 및 국가지도자로 높이 평가받았다. 대한민국 초대 육군총장을 지낸 이응준 장군은 “이승만 박사는 현세기가 낳은 한국 최대의 정치가 중 한 사람임에 틀림없다며 그를 제1급의 애국자, 혁명가, 지도자”로 높이 평가했다.¹²⁰⁾ 백선엽 장군도 “전쟁의 위기를 이승만이 아닌 어떠한 영도자 아래서 맞이했다고 해도 그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술회했다.¹²¹⁾ 유엔군사령관을 지낸 클라크 장군도 “한국의 애국자 이승만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반공지도자로 존경한다.”라고 치켜세웠다.¹²²⁾ 미 제8군사령관을 지낸 밴플리트 장군도 “이승만을 위대한 한국의 애국자, 강력한 지도자, 강철 같은 사나이이자 카리스마적인 성격의 소유자”라고 칭하면서¹²³⁾, “자기 체중만큼의 다이아몬드에 해당하는 가치를 지닌 인물”이라고 칭송했다.¹²⁴⁾ 밴플리트 장군 후임인 테일러 장군도 “한국의 이승만 같은 지도자가 베트

119) 백선엽, 『군과 나』, p.277.

120) 이응준, 『이응준자서전: 회고 90년 1890~1981』, 삼아원책사, 1982, p.490.

121) 백선엽, 『군과나』, p.351.

122) 프란체스카, 조혜자 옮김, 『이승만 대통령의 건강』, p.56.

123) Paul F. Braim, 육군교육사령부 역, 『위대한 장군 밴플리트』, 2001, p.489.

124) 로버트 올리버, 황정일 옮김, 『신화에 가린 인물 이승만』, p.345.

남에도 있었다면, 베트남은 공산군에게 패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¹²⁵⁾

특히 미 제8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을 차례로 역임한 리지웨이 장군은 “이승만은 공산주의에 대한 증오에서는 타협을 몰랐고, 자기 국민에 대한 편애가 심했고, 불가능한 일을 끈질기게 요구했으나 마음속에는 깊은 애국심으로 가득했고, 애국심에 의지해 오랜 망명생활을 보내고 귀국한 이후 눈 뜬 시간의 거의 전부를 나라를 위해 바쳤다.”고 회고했다.¹²⁶⁾

이렇듯 이승만은 개전 초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미군의 신속한 개입을 재촉하기 위해 노력했고, 미군 참전 이후에는 작전통제권을 위임하여 미국의 책임하에 전쟁이 전개되도록 만든 후 그는 오로지 민족의 숙원인 북진통일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중공군 개입으로 미국의 대한정책이 휴전협정으로 통한 종전정책으로 바꾸자, 제2의 6·25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국군 전력 증강 등 전쟁억지력 확보에 노력했다. 그는 미래의 민족의 생존과 국가이익을 위해 진정성을 갖고 위국헌신(爲國獻身)했던 대한민국 건국 및 호국대통령으로서 손색이 없는 ‘제1급의 국가지도자’였다.

(원고투고일 : 2011. 4. 1, 심사수정일 : 2011. 4. 21, 게재확정일 : 2011. 4. 29.)

주제어: 이승만, 6·25전쟁, 전쟁목표, 전쟁지도, 북진통일, 망명정부, 한미상호방위조약, 맥아더, 김일성, 정일권

125) 프란체스카, 조혜자 옮김, 『이승만 대통령의 건강』, p.57.

126) 매튜 B. 리지웨이, 김재관 역, 『한국전쟁: 제2대 유엔군사령관 매튜 B. 리지웨이』, p.176.

<ABSTRACT>

The Role as Wartime Leader of President *Syngman Rhee* during the Korean War

Nam, Jeong-ok

This article aims to explain about the role as wartime leader of President *Syngman Rhee* during the Korean War(1950~1953).

The Korean War was the most difficult and potentially the most disastrous of the early Cold War period, a conflict which directly involved one of superpowers in open war with the most populous state in the world. The other superpower was only indirectly involved but there was always the possibility that it might intervene: a third world war could erupt.

This study has tried answer the following key questions: (1) How did President *Syngman Rhee* act the initial stage and after of the North Korea's surprise attack against the Republic of Korea (ROK)? (2) What was war policy and objective of President *Syngman Rhee*? (3) When and Why did President *Syngman Rhee* try to penetrate 38th parallel? (4) Why did President *Syngman Rhee* involve the United States into the Korean War? (5) What was role of President *Syngman Rhee* as a wartime leader during the Korean War? (6) What did President *Syngman Rhee* obtain from the United States after the Armistice?

In seeking answers to the above questions this paper used the State Department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Documents and Files of the Korea Government, the Korean War History of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of the ROK, and the Memoirs of those officers and generals who

played an active part in policy-making were consulted.

In conclusion, President *Syngman Rhee* achieved an enforcement of the Korean armed forces and the ROK-US alliance relations through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this concept, he was a great patriot, national leader, wartime leader like Winston Churchill or Franklin Roosevelt, and international political scholar and leader.

Key Words : *Syngman Rhee*, the Korean War, War Objective, Conduct of War, Unification to North, Government in Exil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ouglas MacArthur, *Kim Il-Sung*, *Chung Il-kwon*